♔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마28:18-20)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발 행 · 발 행 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룻 기

아름다운 사람 보아스
(룻기 2:4-13)

박노철 목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등은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특징은 그들 모두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정 신앙의 고백대로 살았기에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마치 축복이 전달되는 것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1.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보아스

보아스는 자신의 논과 밭에서 일하는 종들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눌 때도 이처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여 땀으로 범벅이 되어 거지꼴이나 다름없는 룻을 보고 보아스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네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받는 가장 놀라운 복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마치 메아리와 같아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축복과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을만한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그 복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2. 배려의 사람 보아스

보아스가 이삭 줍는 여인 룻에게 베푼 배려는 은밀하고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8, 14절). 혹시 룻이 알면 민망해 할까 봐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보아스의 마음은 진정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다락방원들이여, 우리가 서로 이런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3. 명분과 원칙을 지켜 책임을 다한 보아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의 두 아들도 다 죽은 상황에서 나오미 가정은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 되어주어 자녀를 낳게 해주면 혈통을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사실 기업을 무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 모든 일을 원칙에 입각하여 합의를 본 후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풍성히 사용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이 되며, 어떤 일에든지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oaz, a man of beauty
(Ruth 2:4-13)

Pastor Kichul Choo, Pastor Yangwon Sohn, Pastor Yoonsun Park, and Pastor Kyungjik Hahn, are all men who exerted a good influence on Korean churches. These men shared the common trait that they all had lived a life of faith corresponding with action. Since they have lived according to the confession of their faith, they have touched our hearts. Wouldn't you like to move someone's heart like them? Wouldn't you like to be the type of person who makes others feel warm and comfortable, and brings blessings to whoever you meet?

1. Boaz, the one who speaks the language of blessing

Upon seeing his harvesters working in the field, he said to them, "The Lord be with you." Even when he first met Ruth and spoke with her, he spoke in a language of blessing that comforted her. Ruth had been working so hard that day that she must have been covered in sweat, and probably had a dishevelled look.

He said to her, "May you be protected and richly rewarded by the Lord."

The man who speaks the language of blessing, first of all, enjoys the most wonderful blessing in God. The language we speak is like an echo. Whatever we say comes back to us again. No matter how earnestly a person prays for the blessing and peace of someone else, if that person does not deserve to receive it, that blessing will not go to him but come back to one who prayed.

2. Boaz, the one who thoughtfully considers others

Ruth, who had been picking up leftover grain, received consideration that was secret and touching (Ruth 2:15). The heart of Boaz which cared for Ruth in a sensitive way, lest she should feel sorry, was truly the heart of God. Jesus told us,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Wives, husbands, and members of our "upper-room" small group ministries! If you are able to have this kind of thoughtful consideration for others, you will be changed into people who touch other people's hearts.

3. Boaz, the one who carries out his duty completely, upholding his principles

Because Naomi's husband, Elimelech, died along with her two sons, Naomi's family lost the chance of continuing their bloodline. However, if one of her husband's close relatives (a kinsman-redeemer) decided to marry her and give birth to a son, then the bloodline could continue. Boaz was one such relative of her husband. The reason why Boaz helped Ruth was that he knew he was responsible for her. Moreover, he upheld the principle of a kinsman-redeemer by carrying out his duty. Although there were other kinsman-redeemers available, Boaz reached a mutual agreement, and, following the biblical principle, became Ruth's husband.

My beloved Christians!

By richly speaking the language of blessing, and becoming a thoughtful, considerate man, and carrying out our duty according to biblical principle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live a wonderful lif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39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2011년 3월7일(월)~5월9일(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설교와 그 준비"

3월7일(월)부터 시작되는 제3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신학 세미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설교와 그 준비"를 주제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10주간 진행되며 1교시(2:00-3:30)는 허 주 교수가 데살로니가 전 · 후서 강해를 하고, 2교시(3:50-5:20)는 주제에 따라 10명의 교수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날짜	1 교 시	2 교 시	강 사
3/7		히브리적 인지구조에 의한 설교본문 분석	김재진 교수(숭실대, 한국 기독교문화진흥원 부원장)
3/14		청소년을 위한 설교준비	김기홍 목사 (아름다운 교회)
3/21	데살로니가	목회에서의 설교의 중요성과 준비	이전호 목사 (충신 교회)
3/28	전 · 후서 강해	나는 이렇게 설교준비를 한다.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 교회)
4/4		설교를 위한 준비 작업	김운용 교수 (장신대)
4/11	허 주 교수	설교 작성법	이성민 교수 (감신대)
4/18	(아신대)	설교와 스피치(Speech)	정인교 교수(서울신대)
4/25		설교에서의 유머예화의 역할	김진배 원장 (유머센터, 연세대)
5/2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 준비	박성원 교수 (영남신대)
5/9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설교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목회자 세미나 섬김위원 명단>

원감 오광환 **부감** 이계홍 **총무** 김종철 **회계** 박현영 **서기** 임송자 **안내1 팀장** 최종희 최금숙 김숙영 장호림 장효정 전화진 김순영 한명자 이경란 오정숙 **안내2 팀장** 김유경 박분옥 이은희 박재숙 이현주 유안순 **서적 팀장** 오은이 최종금 정갑례 황란옥 신아령 하영숙 진경자

글로리아 팀장 서희숙 구영미 김은희9 김미성1 박종녀 **접수 팀장** 김수호 (임송자) (박현영) 백혜영 나상민 전광환 박종숙 신선주1 노인숙 **차량 팀장** 강승웅 배준길 정동학 **식당 팀장** 최미아 제2권사회원 **봉사 팀장** 방효철 이남성 김희동 한종표 (김종철)

선교사 도고기도팀 탐방-방글라데시

아름다운 세팅

주일 오후 4시, 서울교회 옥탑 901호. 두툼한 기도 파일을 펼치고 둘러앉은 이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파일의 제목은 <방글라데시 선교사 도고 제목>. 방글라데시로 파송된 조남혜, 박진영, 김미성 선교사와 수브로토 바로이(Subroto Baroi) 목사의 근황과 도고할 기도제목들이 파일을 가득 채우고 있다.

방글라데시 도고기도팀은 2005년 선교위원회 발족과 동시에 모임을 시작하여 최장수 도고기도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6년 여의 시간동안 기도의 경륜을 쌓으며 방글라데시 선교사들과 한마음이 된 이들이다. 방글라데시로 파송된 선교사들은 형제자매, 부모가족 중에 믿는이가 하나도 없어 기도팀의 후원과 지원에 크게 위로를 받고 있다. 그동안 선교사들과 주고받은 서신들뿐 아니라, 방글라데시의 지도에서부터 국가 개황, 이슬람 국가에 대한 설명, 방글라데시 한인회의 소식과 한국의 관련기사 파일이 말해주듯이 선교지 형편과 사정에 밝고 선교사역에 깊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팀원들의 생일과 가정사를 가족처럼 돌보고 섬기며 교제의 시간을 갖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다.

도고회 팀장 양정실 권사는 "특히 올해는 킴치세미나(6월)와 해외 단기선교(8월)가 모두 방글라데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방글라데시의 해' 이기도 해요. 연중 교회의 계획과 일정에 맞춰 특별기도를 하고 있지요."라고 했다. 선교대학 동창들과 다락방, 소요리문답부, 영아부, 장년2부가 방글라데시 도고기도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6년동안 함께 기도하며 간구한 것들 중 안 이루어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은, 2006년 첫 파송부터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 다카장로교회를 설립하고 지난해 11월 29일, 서울교회 창립기념예배에서 박진영, 김미성 선교사를 의료선교사로 파송하기까지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밀하게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방글라데시 선교와 함께 부흥해 왔다. 초창기 멤버들이 체코, 터키 등의 도고모임의 씨앗으로 심기우고 풍성한 열매를 나누게 되었고, 기존 팀원들도 선교사들과 영적 승전보를 주고받으며 크게 성장한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국가 중에서도 빈곤국으로 현재 조남혜 선교사는 소외된 지역의 빈민과 고아들을 돕는 유스호스텔(아샤 호스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열악한 형편에 놓인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의 어머니들을 교회로 불러 말씀을 전하는 잠앗 사역(여성가정교회)이 궤도에 올랐다. 바로이 목사는 현지인 사역을 담당하며 다카장로교회를 개척, 힌두교도였던 마을 주민 346명 전체가 세례를 받고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를 전해오기도 했다. 최근 파송된 박진영, 김미성 선교사는 꼬랑 똘라 지역에 정착해 의료선교를 펼치며 방글라데시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고팀은 입을 모아 '아름다운 세팅'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한다.

나소정 집사(편집부)

사랑부 겨울성경학교

오늘 사랑부(부장 이계홍 집사)는 겨울성경학교를 개최한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를 주제로 강사는 문정훈 목사가, 장소는 서울교회에서 갖는다.

2011 농어촌 100교회 운동
비전2020운동
한가정 한선교사 운동 후원

<농어촌 100교회 운동 후원자>

하극수(조영자) 이지동 양옹한 구귀순 한상준 김동봉 진교인 김지숙 윤동수 강재훈 박태선(김초일) 김태기(김오른) 윤태욱(박순복) 전광영(김인숙) 최양진(강윤숙) 김동수 양지훈(최성희) 최원석(박길희) 김재근(안분선) 김성준 탁경준 이광배 우도현 박미경 육순자 소윤경 김용환 문성주 이 훈 양은정

<Vision 2020 운동 후원자>

김영희 고인진 김동봉 권성열 김지숙 강재훈 김태기(김오른) 김명옥 김치삼 김태삼 고석태(장효정) 나상민 노애리 김재용(김재령) 박혜선 박태선(김초일) 박두호 박정임 박영숙 박인자 백정숙 성선규(김명신) 서상근 이경희 임영숙 이상은 오유식 이영희 유병옥 이재윤 이미경4 이혜정 이학주(이은옥) 이계홍 이유성 유선희 이승희 오광환 이현숙 임윤자 전인화 전원순 장정화 신봉하(전숙향) 정용문 진교남 정미자 정을순 지영순 최홍열 한인권 하정자 허경화 현성출 한상준(임명숙) 뵈뵈전도회

<한가정 한선교사 운동 후원자>

강재훈 강택근(정유선) 김동봉 김상임 김상태(김숙자) 김태기(김오른) 김혜란 김화정 도중섭(이미경4) 박광옥 박미혜(김규태) 박해선(김초일) 백정숙 성선규(김명심) 신호용(김설아) 우승희 원명희 유경희 유순임 유현주(이은미) 이남옥 이덕진 이동기 이승희 이영희 이용재 이지동 임종태 전광영(김인숙) 전현주 제영진 허경화 현다영 홍성모(노은아) 홍혜란 15-7 다락방 5-1,5-2연합다락방 리브가전도회 베드로선교회 아브라함선교회 이삭선교회

『코람데오 서울교회 1991-2010』 배포 마감

『코람데오 서울교회 1991-2010』배포를 오늘로 마감한다.

남은 분량의 책자는 우리교회의 자료로 보관하고자 하니 쿠폰을 받은 성도들은 오늘 중으로 교환하여 가기 바란다.

2월 9일(수)에 있었던 섬김의 경로잔치

성경통독사경회를 마치고

온종일 주님을 만난 기쁨

권장환 집사(10교구)

언제나 말씀은 달고 오묘하며, 생수 같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중요한 결단을 할 때 말씀에 힘을 얻어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침반을 잃은 듯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 설날을 보내며 새로운 각오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고, 나의 길을 말씀의 등불로 인도받고 싶었습니다. 언약의 궤를 매듯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자 성경통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여행과, 고향 방문도 다음으로 미루며, 새해의 시작으로 기대에 찬 말씀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분의 목사님이 단상에서 1장씩 번갈아 낭독하셨으며, 낭독자들이 읽는 동안 성도들은 일체의 잡담을 금하고, 눈으로 글씨를 목독하며, 귀로 정확하게 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는 전체가 "00장"이라고 힘차게 외쳤고, 마지막 절은 합창하듯 크게 읽으며, 끝부분에는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손에 색연필을 들고 줄을 치는 성도들, 눈을 감고 묵상하는 성도들, 다양한 모습으로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마음을 편안하고 기쁘고 은혜의 강가에 머물게 했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벅찼던 다음날은 아침 8시부터 열왕기상 11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씩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아프기도 했지만, 2시간 말씀을 통독하고 15분의 휴식은 또 하나의 쾌재였습니다. 정말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휴식의 맛을 이렇게 실감하다니, 이 또한 경험자의 기쁨이리라. 싸인보드에 말씀을 쓰고, 싸인을 하며 기록을 남기고자, 돌성경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맛있는 떡국을 먹는 시간도 새해 첫날 귀한 성도와의 교제였습니다.

다윗의 용맹과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성경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체득되었기에, 온종일 주님을 만난 듯 뿌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말씀이 동행하는 진정한 성도의 성숙한 삶이 되어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천국시민 양성

준비된 그릇이 되겠습니다

김가현(대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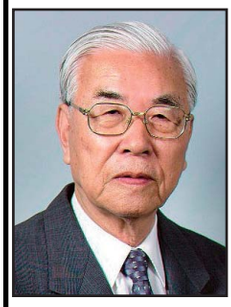
저는 지난 1월 1일, 가족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거듭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1년 전인 2010년 첫 주일 저와 저희 가족은 20여 년 간 섬기던 교회를 떠나 서울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수했지만, 담임 목사님 승계 과정에서 비롯된 당회의 분열 모습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했고, 마침내 2010년 1월 서울교회의 새가족으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서울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2010년 한 해는 저에게 엄청난 회복과 더 큰 은혜로의 통로가 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당신의 천사들을 제 주변 곳곳에 두심으로 저로 하여금 핸드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길로 감히 쓰임 받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 저는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들을 저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어느 새 서울교회는 저의 마음 속에 사랑하는 나의 교회가 되어있었습니다. 깨어진 마음과 주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저와 저희 가족에게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신 지난 날들을 세어 보며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을 삼던 중,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저보다 믿음의 깊이가 더욱 깊은 학생들이나 혹은 장학금이 훨씬 긴요한 학생들도 많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과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며 저에게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단순한 장학금 그 이상의 의미로 받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어리고 부족한 학생이지만 저에게 주시는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기억하며 더욱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배워 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쓰시기에,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를 위해 쓰임 받는 준비된 그릇이 되겠습니다.

고 임광식 원로장로 추모의 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임광식 장로 그분은 신사이고, 서울교회의 거목이고, 말이 없으시되 행동하시는 어른이십니다. 장수 집안에서 태어나시어서 장로님도 천수를 누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일찍이 일본 동경대에서 수학하실 정도로 지성인이셨고, 지혜와 학문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은 보배롭고 귀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신 장로님이시었습니다. 장로님의 믿음은 흔들릴 줄 모르는 거목 이상이었고 초지일관이었습니다. 깊고 높은 믿음이 있었기에 무엇을 맡겨도 100배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시다가 1991년 서울교회에 오신 것 자체가 장로님의 신앙간증이었습니다. 1992년 3월 서울교회 장로로 취임하시어 9년동안 시무하시다가 원로장로로 추대되시었습니다. 음악에는 음치이시었으나 찬양위원장을 맡으셔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서울교회에서는 재정위원장으로 건축위원장으로 일하시면서 기초도 쌓으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걷기가 불편하시면서도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주일예배는 물론이고 수요예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어 깊은 기도와 간구로 드리셨습니다.

이제 서울교회의 거목이신 임광식 장로님은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셨기에 장로님의 신앙, 인품, 인격은 우리 기억 속에 남겨질 뿐이어서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슬픔이고 미련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던 임광식 장로님!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거하십시오. 장로님이 꿈꾸던 서울교회는 이제 20세 청년이 되어 도약합니다 비약합니다 비전과 꿈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장로님이 뿌려놓으신 밑거름이셨으니 우리는 장로님의 헌신과 공로를 길이길이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장로님을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고대광실, 그 좋은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장로님 사랑했습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장로님 기억하겠습니다.

2011년2월11년

김광신 장로 드림

겨울 성경학교 초대의 글

다음세대, 하나님의 일꾼!

최차순 집사 (유아부 부장)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신6:4)라는 주제로 유아부 겨울 성경학교를 2월 20일(주)부터 22일(화)까지 예배, 율동, 찬양, 구연동화, 가베(gabe)놀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즐겁고 신나는 유아부로 어린이들을 초대합니다.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기도하는 어린이들. 믿음의 순수함이 어떠하여야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유아부.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윌리엄 워즈워드는 말 하였던가요. 믿음의 용장, 이삭, 에스더, 다니엘 등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위대한 일꾼으로 반듯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어린이들을 꿈꾸는 부모님들은 주저 없이 신앙의 기초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유아부 성경학교로 보내주세요. 다음세대 역사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는 기도하여주세요.

김형상 집사 (유치부 차장)

유치부(부장: 권장환)에서는 2월20일 주일부터 2월22일(화)까지 박진아 목사님을 강사로 "우리가 다음세대 하나님의 일꾼이예요!(사도신경이 뭐예요?)"란 주제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겨울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찬양과 율동, 레크레이션, 성경인물 영화보기, 코너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하여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믿음의 새순이 튼실하게 자라도록, 친구들과 소중한 만남이 주안에서 자리매김하여 귀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오시길 기다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기도로 동참하여 주신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인지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의 사랑과 더불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가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서울교회 유치부의 열린 문입니다.

김은빈 어린이 (유년부)

유년부 친구들~ 샬롬!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겠지요? 새 학년을 기다리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몇 가지 있어요. 새 학년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예요. 그리고 새 학년을 준비하면서 이번 봄방학에 제가 제일 기대되는 것은 겨울성경학교예요. 겨울성경학교에 가면 김안성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성경말씀도 배우고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은 생각에 기대가 커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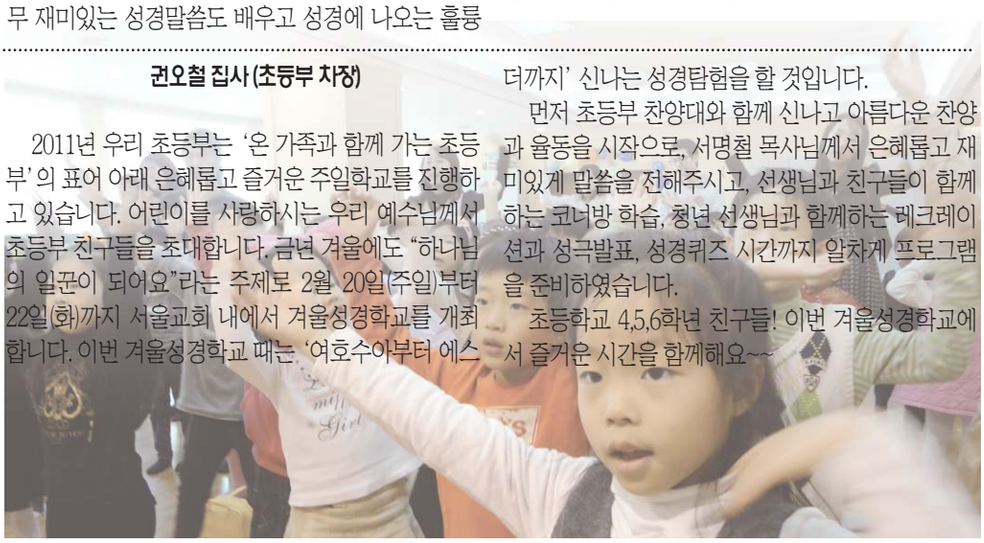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2월 21일 월요일부터 22일 화요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란 주제로 열려요. 우리 모두 꼭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믿음도 자라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새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친구들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권오철 집사 (초등부 차장)

2011년 우리 초등부는 '온 가족과 함께 가는 초등부'의 표어 아래 은혜롭고 즐거운 주일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초등부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금년 겨울에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요"라는 주제로 2월 20일(주일)부터 22일(화)까지 서울교회 내에서 겨울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 때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신나는 성경탐험을 할 것입니다.

먼저 초등부 찬양대와 함께 신나고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을 시작으로, 서명철 목사님께서 은혜롭고 재미있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코너방 학습, 청년 선생님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과 성극발표, 성경퀴즈 시간까지 알차게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초등학교 4,5,6학년 친구들! 이번 겨울성경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해요~~



특 별 찬 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대학부 고요한 성도의 해금 독주로 하나님께 드린다. 고요한 성도는 국악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2월)을 앞두고 있다. 국립국악원 주최 전국 국악경연대회 해금부문 은상을 수상하였고, 한양대 음대 정기연주회 협연을 하였으며,동아일보주최 국악 동아콩쿨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오늘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Lanny Wolfe)"외 2곡을 이경진 선생의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제2권사회 주관 불우이웃돕기자선바자

2월14일(월) - 17일(목)

제2권사회(회장 최미아 권사)는 14일(월)부터17일(목)까지4일간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한 여성정장 브랜드 루치아노 최와 공동으로 불우이웃 돕기 자선 바자를 갖는다. 예년에 비해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될 예정이다.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동정

- 윤영남 권사는 2월 10일부터 KICS (Korea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평생교육원장으로 부임.
- 학위수여: 4교구 오은경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 박사 학위(2011. 2. 18)
- 득녀: 11교구 임승한 박찬미 집사 가정

■ **주간 식당 봉사**: 베드로선교회(2.13) 바울선교회(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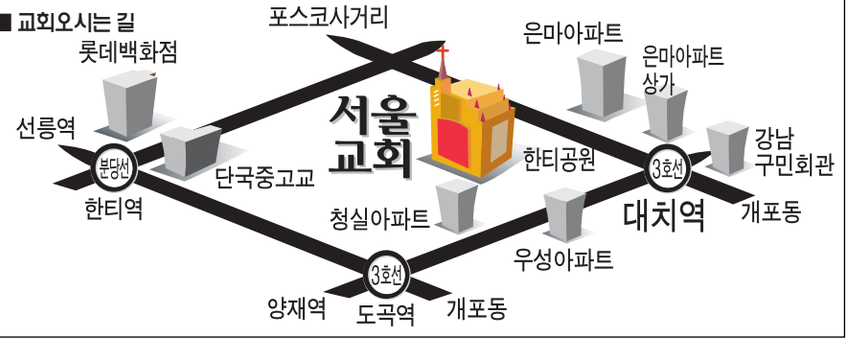
■ **금주의 식사제공**: 김윤섭 성도 박명석 권사,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모든 부서가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2. 교육1국 겨울성경학교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3. 구제역과 조류독감을 하루 빨리 소멸시켜 주소서.
4.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Ⅰ부	오전 9시
	Ⅱ부	오전 11시 20분
	Ⅲ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Ⅰ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